

사전 설계심사 철저 혈세 아꼈다

광양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설계심사를 철저히 진행, 수십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개발을 옮겼다.

그동안 각종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설계과정에서 잘못된 공법과 자재를 채택, 단거나 수량에 대한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시행 도중 찾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부실시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말부터 시설직 3명으로 구성된 설계심사 전담부서를 신설, 운영 중에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619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사전 설계심사를 실시해 46억 5천700만원 예산을 절감, 재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공사 및 용역원이 적정정책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도서 검토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공사단과 원가계산이 적절한지를 하고 사업발주를 완료했다.

시는 설계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우선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당초 9단계인 심사절차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해 최대 8일이 소요되는 기간을 2일 이내로 단축했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설계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설계심사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

성된 공동 심사절차를 거쳐 4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했다.

5억원 이상 일반사업의 경우 설계 심사위원회 심사요청 여건에 따라 월 1회 정례적인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개최했다. 13회의 위원회 가운데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서면심의를 4회 운영해 당초 14일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원가의 적정한 책정으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부실설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기술·신공법·신자재 발표회와 원가계산 교육 등에 적극 참석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더욱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신안 양파 대만 첫 수출

신안군은 13일 (주)신안 그린유통과 신안산 양파 400t을 20kg들이 1망당 9천300원에 대만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선적작업을 마쳤다. 이번

신안산 양파 첫 수출을 계기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판로확보

/신안=조완기자 wncho@

여수 한국바스프 스팀공장 본격 가동

하루평균 180t 규모 폴리우레탄 원료 생산

한국바스프(주) 스팀 보일러 플랜트가 지난 9일 여수산업단지 현장에서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스팀 보일러 플랜트 준공은 지난 2007년 6월 바스프와 전남도, 여수시

가 투자협약을 맺은 지 2년 만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준영 도지사와 틸만 크라우흐 바스프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장, 조진우 한국바스프 회장, 김동문 한국바스프 사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틸만 크라우흐 사장은 준공식에서

“바스프는 지난 20년 이상 여수시와 맺어온 상생적 협력관계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스팀 보일러 플랜트 완공을 통해 여수 지역경제와 화학업계 성장을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박준영 도지사는 “스팀 보일러 플랜트 준공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이 되고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국내 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고 평가했다.

6천300만달러가 투입된 스팀 플랜트는 하루평균 180t 규모의 폴리우레탄 원료(MDI, TDI)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스팀을 공급한다.

특히 스팀 생산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촉매화학 처리기능이 적용된 최신 청정대기 공법이 사용돼 가동된다.

한편 세계 최대 화학업체인 바스프는 100여 개가 넘는 생산공장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화학회사로 1998년 전남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8천231억원을 투자해 300여 명을 고용하는 등 지역친화형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전남, 향료산업 부흥 꿈꾼다

농기원 향 원료 출하 특허

전남지역에 산재한 천연자원에서 향(香) 원료를 주출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돼 전남도의 향료산업 육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13일 “농업 기술원 미래농업연구소와 단국대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최근 향 원료를 주출할 수 있는 천연정유(精油) 생산 장비를 개발해 특허출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된 장비는 수증기를 이용해 향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학제품을 용매로 이용하던 방식과 차별화시켰고, 향료 작물의 줄기·꽃·잎 등 사용범위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유 추출 방법에 따른 수율 분석 결과 유자 50kg을 기준으로 손 추출 시는 1kg당 1.0ml인데 비해 수증기 증류법은 1kg당 14.1ml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국내외 향료작물 150여 종 가운데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우수한 유자와 소나무 등 7종을 선발해 천연주방용 세제제와 샴푸, 비누,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래농업연구소 조경숙 박사는 “이번 특허출원을 계기로 꿈꾸는 아토미 등의 효성이 검증된 천연정유를 이용한 웰빙제품 개발과 천연정유 대량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천연향료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바다 한 가운데서 휴가 즐기세요

강진 마량 앞바다 ‘콘도형 낚시터’ 개장

강진군 마량면 서중마을 앞바다에 ‘바다콘도형 낚시터’가 13일 문을 열었다.

강진군은 전형적인 어촌관광 체험마을인 마량면 서중마을에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한국어촌어항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1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해상콘도시설을 설치했다.

서중 선착장에서 200m거리에 위치한 바다콘도형 낚시터는 26m(8평), 20m(6평), 13m(4평) 등 원룸형 3동과 바지낚시터 26m(8평) 2동이 사계절 유어장으로 운영된다.

1박 2일 기준 10만원에서 18만원 까지 다양한 바다콘도형 낚시터에는 냉·난방시설과 샤워실, 취사도구 등이 완비돼 있다. 이 밖에도 민박시설 2동과 함께 통발 체험과 선상체험, 벌레체험, 겨울에는 해상콘도시설을 만끽할 수 있다.

김성환 서중마을 어촌체육장은 “방학과 휴가를 맞은 체험객들이 바다와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용문의 (seojung.seantour.org·010-4606-9935)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전남 서남권 기업체

여름휴가 평균 3.5일

올해 전남 서남권 기업체 하계 휴가 일수는 평균 3.5일, 휴가비(정액)는 평균 25만8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서남권 지역 회원사 100개 업체를 대

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5일이며,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과

았다.

휴가 일수는 3일이 38.4%로 가장 많았고, 4일 33.1%, 5일 20.7%로 나타났다. 또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지난해의 45.3%보다 감소 했고, 휴가비도 지난해 26만원보다 0.8% 줄어든 25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남 서남권 기업체

여름 휴가 평균 3.5일

올해 전남 서남권 기업체 하계 휴가 일수는 평균 3.5일, 휴가비(정액)는 평균 25만8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서남권 지역 회원사 100개 업체를 대

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5일이며,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과

았다.

휴가 일수는 3일이 38.4%로 가장 많았고, 4일 33.1%, 5일 20.7%로 나타났다. 또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지난해의 45.3%보다 감소 했고, 휴가비도 지난해 26만원보다 0.8% 줄어든 25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남 서남권 기업체

여름 휴가 평균 3.5일

올해 전남 서남권 기업체 하계 휴가 일수는 평균 3.5일, 휴가비(정액)는 평균 25만8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서남권 지역 회원사 100개 업체를 대

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5일이며,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과

았다.

휴가 일수는 3일이 38.4%로 가장 많았고, 4일 33.1%, 5일 20.7%로 나타났다. 또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지난해의 45.3%보다 감소 했고, 휴가비도 지난해 26만원보다 0.8% 줄어든 25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남 서남권 기업체

여름 휴가 평균 3.5일

올해 전남 서남권 기업체 하계 휴가 일수는 평균 3.5일, 휴가비(정액)는 평균 25만8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서남권 지역 회원사 100개 업체를 대

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5일이며,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과

았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남 서남권 기업체

여름 휴가 평균 3.5일

올해 전남 서남권 기업체 하계 휴가 일수는 평균 3.5일, 휴가비(정액)는 평균 25만8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서남권 지역 회원사 100개 업체를 대

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5일이며,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과

았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남 서남권 기업체

여름 휴가 평균 3.5일

올해 전남 서남권 기업체 하계 휴가 일수는 평균 3.5일, 휴가비(정액)는 평균 25만8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서남권 지역 회원사 100개 업체를 대

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5일이며,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과

았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남 서남권 기업체

여름 휴가 평균 3.5일

올해 전남 서남권 기업체 하계 휴가 일수는 평균 3.5일, 휴가비(정액)는 평균 25만8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 상공회의소(회장 주영순)가

서남권 지역 회원사 100개 업체를 대

상으로 하계휴가계획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3.5일이며, 휴가비 지급예정 기업은 43.1%로 과

았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남 서남권 기업체

여름 휴가 평균